

TRANS- HUMANITIES

**Title : 중국 명대 여성작가의 문학체험과 글쓰기: 여성작가의
서발문(序跋文)과 서간문(書簡文)을 중심으로
Women's Literary Exchange and Literary Recognition in
the Ming Dynasty: Focusing on Women Anthologies and
Letters**

Author(s) : 정민경 (CHEONG Min-Kyung)

Source : *Trans-Humanities*, Vol. 5 No. 2 (2012), pp. 121-148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중국 명대 여성작가의 문학체험과 글쓰기

- 여성작가의 서발문(序跋文)과 서간문(書簡文)을 중심으로

정민경

1. 들어가며

이제까지 우리는 중국 전통시대의 여성은 여성을 옥쇄는 윤리 속에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사람들로 여겨왔다. 그러나 명대(明代) 이후 급격히 늘어난 여성작가와 그들의 여성문집을 살펴보면 이제까지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명대 여성만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전 여성작가들, 한대(漢代)의 반소(班昭), 위진(魏晉)시기의 사도온(謝道韞), 당대(唐代)의 설도(薛濤), 이야(李冶), 어현기(魚玄機), 송대(宋代)의 이청조(李清照)와 주숙진(朱淑真)처럼 각 역사시대하면 몇몇의 여성작가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반면, 명대로 들어오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 250명이나 되는 여성작가들이 출현하게 된다.

이렇듯 명대에 와서 여성작가와 여성문집이 대량으로 늘어난 것은 명대가 현대시기와 가까워서 그들의 문집이 다른 시대보다 많이 보존된

까닭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명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들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명대 중기 왕양명(王陽明)의 양명학(陽明學)이 나오고 이지(李贄)의 동심설(童心說)이 유행하게 되면서 명대에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작품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남을 중심으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출판 사업도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명대 이전에는 관각(官刻)을 중심으로 출판이 이루어졌다면 명대에는 경제적으로 부가 집중된 강남지역, 주로 남경(南京), 소주(蘇州), 항주(杭州), 휘주(徽州), 양주(揚州) 등의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사각(私刻), 즉 개인적인 출판활동이 이루어졌다(박계화, 장미경 58-60).

명대의 사각은 방각(坊刻)과 가각(家刻)으로 나누어지는데, 방각은 영리적 목적으로 출판되는 반면 가각은 집안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명대에는 중국 서적의 역사상 가장 개인 문집의 간행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유명해지면 모두 시문집을 간행하였고¹⁾ 이러한 사회 풍조에 따라 여성의 문집들도 많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여성문집의 간행에 여성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집에 자서(自序)를 쓰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시집에 서발문(序跋文)을 써주면서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게 되었다. 이는 이전의 중국문학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사실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명대 여성이 직접 쓴 서발문과 서간문을 통해 여성 작가들이 어떻게 문학적 체험을 하였고, 어떻게 글쓰기로 표현하였으며

1) 명대 가정연간(嘉靖年間) 당순지(唐順之)의 『형천선생문집』(荊川先生文集)권6 「답왕준암」(答王遵巖)이란 편지글을 살펴보면 당시에 얼마나 많이 시문집이 간행되었고 조금만 유명해지면 모두 시문집을 간행했는가 하는 당시의 세태를 알 수 있다. “푸줏간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영세한 상인들조차도 밥 한 끼 먹을 정도가 되면 사후에 반드시 묘지명 한편이라도 남기려고 합니다. 또 험담한 부하나 귀인들과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세상에 알려지면 사후에 반드시 시문집을 간행하고자 합니다(其屠沽細人有一碗飯喫, 其死後則必有一篇墓誌. 其達富貴人與中科第人稍有名目在世間者. 其死後則必有一部詩文刻集)”(오오키 야스시 32).

자신의 글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문인들의 글보다도 여성작가들이 직접 쓴 서발문이나 서간문을 통해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고찰해보려고 한다.

2. 여성 작가가 참여한 여성문집에 대해

명대에 와서 가각(家刻)이라는 새로운 출판문화가 출현함에 따라 남성작가들의 개인 문집뿐만 아니라 여성작가들의 개인 문집도 대량으로 간행되었다. 명대에는 여성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하고 창작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글을 쓰는 여성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작품 수도 이전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또한 여성들에게도 문학적 동반자, 혹은 집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의 창작물이 사장되지 않고 문집으로 엮여 출판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여성작가들이 대거 출현하였고 그들은 당시의 많은 여성, 남성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작품을 책으로 간행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여성들의 창작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전에는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대부 계층이 여성문학의 주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홀로 규방에서 창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작가들과 문학을 매개로 감정을 교류하거나 사교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여성작가의 작품이나 문집에 서문을 써주면서 창작을 격려하였다.

호문해(胡文楷)의 『역대부녀저작고』(歷代婦女著作考)에 따르면 명대에 여성의 작품을 모아놓은 총집이 다수 나왔는데, 이 중에서 여성이 편찬한 여성작품총집은 심의수(沈宜修)의 『이인사』(伊人思), 방유의(方維儀)의 『궁궐문사』(宮闈文史)와 『궁궐시사』(宮闈詩史), 왕단숙(王端

淑)의 『명원시위초편』(名媛詩緯初編)의 4부로 여성이 여성의 작품을 모아 총집을 낼 정도로 여성의 출판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다.²⁾ 개인 문집의 경우 『역대부녀저작고』에 수록되어 있는 300여 부의 명대 여성 저작들 중 90%이상이 바로 시사문집으로, 이로써 보건대 이 시기에 출간된 여성 시문집만 하더라도 300편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문집들이 출판됐다.³⁾

그렇다면 이렇게 300여 편이 넘는 여성 시문집은 어떻게 간행되었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의 개인문집들은 대부분 각각의 형태로 출판되었고 여성의 문집인 경우도 대부분 가족의 구성원이나 친척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가족들에 의해 판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들의 작품이 개인적으로 모아졌다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었다.⁴⁾ 각각의 형태로 간행된 명대 여성들의 시문집을 살펴보면, 이인(李因)의 『죽소헌음초』(竹笑軒吟草), 서원(徐媛)의 『낙위음』(絡緯吟), 육경자(陸卿子)의 『고반집』(考槃集), 심의수(沈宜修)의 『여취집』(鸕吹集), 양완(楊宛)의 『종산헌』(鍾山獻)은 모두 그들의 남편인 갈징기(葛徵奇), 범윤림(范允臨), 조환광(趙宦光), 엽소원(葉紹袁), 모원의(茅元儀)에 의해 간행되었다. 또 유명한 산곡(散曲)작가인 황아(黃娥)의 경우도 남편인 양신(楊慎)과 함께 출판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작품이 뒤섞여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엽환환(葉純純), 엽소환(葉小純), 엽소란(葉小鸞)의 경우는 시문집이 모

2) 여성의 손으로 직접 작품을 수집하고 선별하고 수록한 여성총집의 경우, 당연히 편찬자의 생각이나 문학관념이 표현되어 있으나 이 중 방유외의 『궁규문사』와 『궁규시사』는 현재 전하지 않고 심의수의 『이인사』, 왕단숙의 『명원시위초편』만이 전해 그 대강을 살펴볼 수 있다. 호문해는 왕단숙의 『명원시위초편』을 청대의 문집으로 분류했으나 왕단숙도 명말청초에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포함시켰다.

3) 호문해, 『역대부녀저작고』, 상해: 상해고적출판사, 2008 참조.

4) 심혜단(沈蕙端)의 경우를 보면 강남의 문학세가였던 심씨(沈氏) 집안의 여인이었지만 왕단숙의 『명원시위초편』에 그녀는 “사곡에 뛰어났으나 오히려 판각되지 않았다(工詞曲, 尙未刻)”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집안에서 간행하지 않는 경우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두 『오몽당집』(午夢堂集)에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인 엽소원(葉紹袁)에 의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요슬(屠瑤瑟)도 재주 많고 사랑하던 딸이 27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자 그의 아버지인 도융(屠隆)이 그녀의 무덤에 묘지명을 짓고 그녀의 문집인 『유향초』(留香草)를 간행했다고 한다. 또한 딸이나 아들, 손자 등의 후손들에 의해 간행되기도 하는데, 주옥소(周玉簫)의 『현견집』(懸鵲集)의 경우 그녀의 딸이 판각하여 전하고 있다고 하고, 범곤정(范壺貞)의 『호승집시초』(胡繩集詩鈔)는 먼저 서원(徐媛)의 남편인 범윤림(范允臨)에 의해 간행되었다가 나중에 그녀의 9대손인 호공수(胡公壽)에 의해 다시 판각되었다. 예인길(倪仁吉)의 『옹향각시집』(凝香閣詩集)도 그녀의 질손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외에도 혼인관계로 맺어진 사대부 집안에서는 친척들에 의해 간행되기도 했는데, 양맹소(梁孟昭)는 매부인 갈정기(葛徵奇)에 의해 『산수음』(山水吟)이란 제목으로 문집을 출판했다.

이처럼 그들의 작품들은 거의 모두 각각의 형태로 가족 내, 친척 내 남성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남성들에 의해 간행되었기 때문에 남성들에 의해 선별된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남성들이 여성문집을 출판한 이 유나 여성문학에 대한 생각들은 여성문집에 써 준 그들의 서발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⁵⁾ 비록 여성 작가 자신의 시문집이긴 하나 남성의 의도된 편집에 얼룩진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300편이 넘는 여성 시문집 중에 자서나 서발문, 또는 편집글의 형태로 여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품집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 속에서도 여성들이 출판에 참여한 경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최수경, 「명청시기 여성문학 자료 역주와 해제(1)」(『중국학논총』제19집, 2006)에 서는 당시 여성문집을 편찬한 전예형(田藝衡), 종성(鍾惺), 엽소원(葉紹袁)이 쓴 서문을 번역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면서 당시 남성들의 여성문학에 대한 시각을 읽어내고 있고, 김원동의 『명말청초 여성의 문재와 창작에 대한 소고-서발문을 중심으로』(『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논총』제21집, 2008)에서도 남성문인들의 서발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물론 남성의 서발문과 비교하면 그 수가 상당히 적긴 하지만 간간히 여성작가들의 서발문이나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서간문 속에는 남성의 시각이 배제된 그녀들만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필자가 호문해의 『역대부녀저작고』와 『역대명원문원간편(歷代名媛文苑簡編)』, 하버드-맥길의 자료, 또 현재 남아있는 몇몇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모아 그 중 사대부 여성이 쓴 서발문만을 선택해 정리했는데, 그 표는 다음과 같다.⁶⁾

작가	지역	작품	형태
顧若璞	浙江省 錢塘	『臥月軒稿』	自序
祁德瓊	浙江省 山陰	『未焚集』	商景蘭의 序
談允賢	江蘇省 無錫	『女醫雜言』	自序
孟蘊	浙江省 山陰	『柏樓吟』	孟思光의 序
方孟式	安徽省 桐城	『紉蘭覺詩集』	吳慧鏡, 方維儀, 鄭氏의 序
方維儀	安徽省 桐城	『清芬閣集』 「輓吳宜人詩」	方孟式の 序/ 自序
桑貞白	浙江省 嘉禾	『香奩集』	自跋
徐範	浙江省 嘉興	『玉臺名翰』	自跋/沈彩의 跋
沈宜修	江蘇省 吳江	『伊人思』/『鸚吹集』	自序/沈大榮의 序
沈靜專	江蘇省 吳江	『適適草』	自序
吳綃	江蘇省 長洲	『嘯雪菴集』	自序
王端淑	浙江省 山陰	『名媛詩緯初編』	自序
劉淑	江西省 廬陵	『个山遺集』	自序

6) 명대에는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의 다양한 생각이 담긴 서발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는 사대부 계층의 여성들로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중국의 전통시기에 여성문학의 주류를 담당하고 있었던 계층은 대부분 기녀이고 명대 이전의 여성문학을 살펴보다라도 거의 기녀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대부 여성들의 문학관과 기녀 계층의 문학관은 확연히 다르고 또한 현재 남겨진 서발문도 사대부 여성의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선 명대 사대부 여성들의 문학체험과 활동을 고찰하고 기녀문학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남겨두도록 하겠다.

李璧	江蘇省 崑山	『介菴集』	自序
張昊		『琴樓遺稿』	商景蘭의 序
朱盛藻	湖北省 黃州	『灌春逸尙』	自序
周慧貞	江蘇省 吳江	『剩玉篇』	沈宜修의 序
項蘭貞	浙江省 嘉興	『裁雲草』	陸卿子の 序
邢慈靜	山東省 臨邑	『黔塗略』	自序
黃鴻	浙江省 仁和	『閨晚吟』	顧若璞, 張似音의 序

20여 편 밖에 되지 않는 이 자료는 그 수가 미미하지만 남성의 그늘을 어느 정도 제거한 채 보다 직접적으로 여성 자신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또한 이들 자료를 통해 여성들이 일정정도 책의 출판과 간행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약박이 황홍(黃鴻)의 『규만음』(閨晚吟)에 쓴 서문에서 “나는 소견이 얇고 어두워 감히 한 글자도 문 밖으로 내보일 수 없지만 부인의 이 책만은 도의상 사양할 수 없기에 서문을 지어 책머리에 싣는다(余淺黯未敢以一字踰戶外, 于夫人是刻, 誼不可辭, 聊次序其語弁簡端)”는 기록⁷⁾이나 맹사광(孟思光)이 맹운(孟蘊)의 『백루음』(柏樓吟)에 쓴 “『백루음』은 나의 고모님 맹운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고 수절하며 지은 것이다. …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판각하여 전하려 하시면서 나에게 교정을 맡기셨다(『柏樓吟』者, 余貞姑守志不字所作也. … 吾家君將鋟而傳之, 命余校正.)”(김지선, 정민경 115-117)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출판에 여성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의수(沈宜修)의 『이인사』(伊人思)나 왕단숙(王端淑)의 『명원시위초편』(名媛詩緯初編)처럼 다른 여성의 작품을 모아 간행

7) 황홍은 고약박의 동생인 고약군(顧若群)의 아내로 고약박과는 올케 시누이 사이가 된다. 황홍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이 황홍의 유고(遺稿)를 모아 출판을 하면서 고약박에게 서문을 부탁하자 써 준 서문으로, 『역대부녀저작고』에 수록되어 있다. 고약박이 서문을 써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체례도 정해 준 것으로 보아 고약박이 『규만음』의 출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김지선, 정민경 18-22).

한 총집의 경우는 더욱 더 자세히 여성 자신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서발문과 서간문을 통해 여성들이 출판에 관여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여성 작가와 그들의 글쓰기를 둘러싸고 형성된 담론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여성작가의 서발문과 서간문을 바탕으로 여성문집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문학적 의미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3. 명대 여성작가의 문학 체험과 글쓰기

1) 여성교육과 여성의 글쓰기

명대로 들어오면서 여성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 명대의 이러한 교육열은 규방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 자신으로 하여금 문화학습에 대한 열망을 갖게 했고 여성의 교양과 교육을 중시하는 가정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특히, 어머니)나 친척이 직접 가르치기도 했고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선생을 모셔 집에 학당을 열어놓고 딸들을 교육시키기도 했다.⁸⁾

명초부터 봉건예교질서를 교육하기 위한 여성의 기록들은 끊임없이 있어왔고, 서황후의 『내훈』을 비롯한 많은 저작물들이 모두 여성의 윤리를 강조하고 선양하기 위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명대에도 여성 교육의 핵심이었던 『여훈』(女訓), 『내훈』(內訓) 등 규방의 가르침에 대한 책들은 꾸준히 읽히고 있었다.⁹⁾ ‘방씨삼절(方氏三節)’이라고 일컬어졌던 방

8) 주혜정(周慧貞)의 「잉옥편(剩玉篇)에 쓴 심의수의 서문에 따르면, 심의수가 주혜정이라는 재녀(才女)를 알게 된 것도 바로 심의수의 남편인 엽소원이 주혜정의 집에 서당선생으로 들어가면서부터이다.

9) 장려걸(張麗杰)의 「明代編纂刊刻女性文集의選文標準及其目的」(『社會科學輯刊』, 2010, 제2기)에는 여성산문의 편찬 목적이 명대 초, 중, 후, 말로 나뉘어

유의(方維儀), 방맹식(方孟式), 방유칙(方維則) 자매의 경우 사대부 여성작가를 대표하는 동성(桐城) 지방의 여성문학가였기에 그들의 작품 중에는 봉건도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방유의가 편찬한 여성문학총집인 『궁궐문사』(宮闈文史)와 『궁궐시사』(宮闈詩史)의 경우 현재 전해지지는 않으나 모두 여성의 교육을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방맹식은 사대부 여성들의 언행에 도덕적 규범을 보이기 위해 이 책들을 간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여제자들에게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본받게 하려했다. 방씨 자매의 문장뿐만 아니라 상정백(桑貞白)의 「향림집자발」(香廬集自跋)¹⁰⁾이나 이벽(李璧)의 「개암집자서」(介菴集自序)¹¹⁾에도 보면 주로 어머니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엄한 가르침을 받으며 여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도리를 몸에 익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대에는 출판업이 활기를 띠면서 다양한 서적들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윤리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소설, 희곡 등의 흥미 위주의 글이나 시가집 등도 상당히 다양하게 읽혔다.¹²⁾ 서발문이나 서간문 속에는 여성 윤리 이외에도 여성들이 아주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교육 활동이 또한 당시 여성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명대 여성들이 교육 받고 읽었던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명대 초기의 선택기준은 덕치(德敎), 명대 중기의 선택기준은 복고(復古), 명대 후기의 선택기준은 입이(立異), 명대 말기의 선택기준은 용세(用世)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가 살펴본 서황후(徐皇后)의 『내훈』의 경우도 명대 초기에 편찬되었는데, 건국 후 예교의 전파가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특히 중시되었던 것 같다.

- 10) “나는 본래 상씨(桑氏) 가문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는 엄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날마다 여훈(女訓)과 열전(烈傳), 경사(經史)를 익혔다(妾本桑林中女, 幼荷嚴母庭誨, 日究女訓烈傳經史)”(김지선, 정민경 47-50).
- 11)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규방의 가르침을 전수하시면서 남아 있던 책을 간간이 꺼내 조금씩 읽어주셨는데 곧잘 외울 수 있었다(幼時父母授以閨訓, 間出遺書分讀, 頗能成誦)”(김지선, 정민경 103-104).
- 12) 최수경은 「명말청초 여성의 어문활동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독서행위를 중심으로」(『중국어문학논집』 제40집)에서 여성의 다양한 독서 행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서적으로는 유가 경전이나 역사서, 불교나 도교 경전, 그림이나 서법에 관한 것들로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하며 각기 이러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¹³⁾ 예를 들어 고약박(顧若璞)의 경우는 여성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것을 무척이나 강조하였고 자신의 다양한 독서행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글쓰기에 반영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 스스로 집안일을 하고 난 뒤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자식의 교육과 독서로 보냈는데, 고약박이 자신의 친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¹⁴⁾ 그녀는 음식을 만들고 배를 짜고 난 틈에 소장한 책들을 꺼내어 사서(四書)와 경전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교감한 명대 역사서인 『황명통기』(皇明通紀), 『대정기』(大政記) 등의 책들을 밤낮으로 펼쳐 읽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두 아들을 훌륭히 길러냈다. 이외에도 「이소」(離騷), 시, 사, 부를 읽고 즐기며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 슬픈 생각을 표현하고 답답한 걱정을 털어버리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고약박은 자신의 시문집인 『와월헌고』(臥月軒稿)의 자서에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일찍이 『시경』을 읽고서 여성들의 일이란 게 그저 술 빚고 밥 짓는 따위나 논하는 것뿐이라 생각했으니, 어찌 감히 필목을 놀려 문사들과 더불어 우열을 다룰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물은 평정을 잃으면 소리 내 울기 마련, 옛날부터 반소(班昭)나 좌분(左芬)과 같이 뛰어난 여성들은 자못 문장을 지어 스스로 즐겼으니 글 짓는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하는 것도 어찌면 또한 본분 밖의 일은 아닐 것이

13) 한숙거(韓淑舉)의 「明清女性閱讀活動探析」(『圖書館工作與研究』, 2009, 제1기)에서 명청여성들이 읽었던 책의 종류를 크게 1) 시가문집(詩歌文集) 2) 유가경전(儒家經典) 3) 사서류(史書類) 4) 불도전적(佛道典籍) 5) 여교전적(女教典籍) 6) 회화서법(繪畫書法) 7) 희곡소설(戲曲小說)의 7가지로 나누고 있다.

14) 고약박, 「친동생에게 보내는 편지」(與胞弟書), 『명원적독』(名媛尺牘) 청각본(淸刻本), 정가동헌(靜寄東軒) 편집.

(<http://digital.library.mcgill.ca/mingqing>) 참조.

다.(嘗讀詩知婦人之職，惟酒食是議耳，其敢弄筆墨以與文士爭長乎？然物有不平則鳴，自古在昔，如班左諸淑媛，頗著文章自娛，則彤管與箴管並陳，或亦非分外事也)(김지선, 정민경 23-29)

그녀는 시를 읽는 것을 여성의 직분으로 여기고 집안일 이외에 글을 짓는 일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글을 쓰는 일이 여성의 본분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를 읽고 난 후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면 글을 통해 풀어놓았다. 그녀는 시를 읽는 일을 며느리와 자식들에게도 권고하며 그들만의 생각을 키워나가길 바랐다. 그녀는 평소 여러 책을 두루 읽은 탓에 단지 독서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글쓰기를 해나갔는데, 시사를 짓는 이외에도 더 나아가 규방 밖의 세계에까지 관심을 가졌다. 그녀가 자신의 친구인 장부인(張夫人)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비록 자신의 만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녀의 경제치용(經世致用)에 대한 생각과 의견까지 엿볼 수가 있다.

우리 만며느리인 정씨(丁氏)는 나를 좇아 당시(唐詩)를 읽었습니다. …… 때로는 천하를 위한 기이한 계책들을 내놓았는데, 유독 둔전제(屯田制)가 무너져버린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울러 말하길, “변둔(邊屯)은 주변의 소요가 걱정되고 관둔(官屯)은 빈 말만 무성하고 실제적인 일이 적을까 걱정됩니다. 저와 당신이 온 힘을 다해 경영하여 금전(金錢) 20만을 얻는다면 곧 조정에 상소를 올려 회하(淮河) 남북에 전지 만 무(畝)를 개간하게 해 달라고 주청합니다. 의로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면 곡식 값이 싸져 군량(軍糧)도 충분할 것이고 군사들은 항상 배부를 것입니다. 그런 후에 또 소금에 관한 정책을 써서 상인들을 불러들여 변방을 개간하게 한다면 군사를 늘리지 않고도 군량이 충분하게 될 것이니, 후대에 ‘민둔(民屯)으로 천자를 도운 것은 아마도 생각하건대 정효의(丁孝懿)라는 여성이 실로 처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칭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비록 과장되긴 하지만 군사의 수를 감축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 거침없이 의론하였으니 부인께서는 그 뜻이 실로 불멸의 것이라 생각지 않으십니까?(冢婦丁, 從余讀唐人詩. … 時爲天下畫奇計, 而獨追恨於屯事之壞也. 且曰: “邊屯則患傍擾, 官屯則患空言鮮實事, 妾與子戮力經營, 倘得金錢二十萬, 便當北闕上書, 請淮南北間田墾萬畝, 好義者引而伸之, 則粟賤而餉足, 兵宿飽矣. 然後仍舉鹽筴, 招商田塞下, 如此則兵不增而餉自足, 使後世稱曰: ‘以民屯佑天子, 蓋處孝懿女實始爲之.’ 死且瞑目矣.” 其言雖誇, 然銷兵屯師, 洒洒成議, 其志良不磨. 夫人之否?)¹⁵⁾

고약박은 당시의 현안 문제인 둔전(屯田)을 두고 며느리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러한 생각을 장부인이라는 친구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 명대 여성작가들이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인해 규방 내에서만 머물렀던 관심이 점차 확대되어 역사를 인식하고 사회를 인식하게 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고약박 이외에도 상경란(商景蘭)의 「시식서」(示媳書)¹⁶⁾나 오백(吳柏)의 「소설암고자서」(嘯雪菴稿自序)¹⁷⁾, 서범(徐範)의 「옥대명한발」

15) 고약박. 「장부인에게 보내는 편지」(與張夫人). 『명원척독』(名媛尺牘), 청각본(淸刻本). 정기동헌(靜寄東軒) 편집.

(<http://digital.library.mcgill.ca/mingqing>) 참조.

16) “붓과 먹을 태워 버린 지 거의 30년이 되었는데 우연히 아들의 책상머리에서 『금루합고』(琴樓合稿)를 보았다. 무릉(武陵) 장사운(張槎雲)이 쓴 것이었다. 너희들은 장사운의 효를 본받아야 하며 장사운의 재주와 아름다움을 본받아야 한다. 장사운의 효와 순수함을 그대들은 함께 힘쓸지이다(焚棄筆墨, 幾三十年, 偶於兒子案頭見『琴樓合稿』. 乃武陵張槎雲所作. … 汝輩能之槎雲之孝, 汝輩能之槎雲之才之美. 槎雲之孝之純, 汝輩共勉之)”(김지선, 정민경 118-119).

17) “나는 요 몇 년 사이 『옹성집선록』(壻城集仙錄)을 읽으면서 여러 여성신선들이 득도하여 떠나는 일을 보았고, 또 도홍경(陶弘景)의 『진고』(眞誥)를 읽으며 구화안비(九華安妃)의 말을 외웠는데, 문채가 아름답고 빼어나 마음으로 흠모하였다(邇年覽『壻城仙錄』, 見諸仙女羽中舉之事, 又讀陶隱居『眞誥』, 誦九華安妃之言, 文

(玉臺名翰跋) 등에서도 시시문집 및 역사서, 야사, 소설 등의 다양한 서적을 접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고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쓰기 태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서범은 「옥대명한발」에서 자신이 중국 고대 여성 서예가인 위부인(衛夫人), 오채란(吳采鸞), 설도(薛濤), 호혜재(胡惠齋), 장묘정(張妙靜), 주숙진(朱淑眞), 관도승(管道昇) 등의 작품을 어떻게 수집했으며 어떻게 감상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당시 여성들이 회화와 서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명대의 여성들은 교육을 통해 글을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형성해나갔으며 이외에도 서예를 연마하고 그림을 그리며, 마음에 드는 글씨를 사들여 소장하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출판하기도 하면서 그들만의 여성문화를 형성해나갔다.

2) 여성교류와 문학에 대한 인식

명대에 출판된 여성의 개인문집을 살펴보면 서로 간에 주고받은 시나 사, 또는 서간문이 많이 발견된다. 이는 당시 여성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¹⁸⁾ 명대의 여성들은 때로는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친구라는 범위 아래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자신들의 문장을 교환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 창작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지기는 했으나 사회의 공적 영역까지 진출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을 근거로 삼아 창작 활

采豔逸，鄙心慕之”(김지선, 정민경 80-84).

18) 최수경은 손강의(孫康宜)가 명청 시기의 여성 작가들과 그 이전 시기 작가들 간의 차이점으로 든 1. 자신의 작품집을 지녔고, 2.출판을 통해 서적의 유통에 참여했으며, 3.여성들의 문학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명말청초의 여성은 더 이상 글 잘 쓰는 재주 있는 '개인'이 아니라 '여성문인집단'으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명청시기 여성문학 자료 역주와 해제 (2)-명대 여성문학가들의 비평자료를 중심으로」 274).

등을 하였고, 그래서 가족은 창작의 동반자이자 격려자인 동시에 가장 친근한 독자였다.¹⁹⁾ 그들은 일종의 계모임처럼 조직을 만들어 서로 문장을 교류하면서 수정해주기도 했고 자신들의 문학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

여성들이 모임을 만드는 이러한 행위는 명말에 그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문장을 주고받는 문사(文社)나 시를 주고받는 시사(詩社)가 있었으며 특히 강남(江南)일대에 이러한 풍조가 만연했다(謝國禎 7). 명말의 여성시사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바로 동성(桐城)의 명원시사(名媛詩社)라고 할 수 있다. 명원시사는 방유의(方維儀), 방맹식(方孟式), 방유칙(方維則)을 중심으로 하여 오령의(吳令儀), 오령칙(吳令則)과 그들 주위의 친척이나 친구들로 결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서발문이나 서간문을 살펴보면 방유의(方維儀)의 『청분각집』(淸芬閣集)에는 방맹식(方孟式)이 서를 써주고, 방맹식(方孟式)의 『인란각시집』(紉蘭閣詩集)에는 방유의(方維儀), 오혜경(吳慧鏡), 정씨(鄭氏) 등이 서를 써주었으며 오령의(吳令儀)가 죽자 방맹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만오의인시」(輓吳宜人詩)를 쓰고 서를 달았다. 또한 방유의가 자신의 조카인 방밀지(方密之)에게 보낸 편지에 “너의 어머니인 오의인(吳宜人)의 『불패거유집』(黻佩居遺集)을 지금 서방(書房)에서 다시 관각해야만 한다. 나의 『청분각집』(淸芬閣集)을 너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주지 말거라. 나는 사람들이 이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汝母宜人黻佩居遺集, 當於書坊中更刻之. 余淸芬閣集, 汝勿漫贈人. 余甚不欲人之知也.)²⁰⁾”라는 구절이

19) 『오몽당집』을 살펴보면 심의수의 경우 특히 엽환환, 엽소환, 엽소란 세 딸과의 창화를 무척 즐겼는데, 때때로 그들의 문재(文才)를 복돋아주기 위하여 시문을 지으라고 명하거나 영물시(詠物詩)나 연주시(連珠詩)를 돌아가면서 지어 재주를 뽐내는 유희를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심의수가 지은 「사시가」(四時歌)는 칠언고시(七言古詩)의 체제로 춘하추동(春夏秋冬) 네 계절의 모습을 담고 있고, 제목 아래에 ‘세 딸과 함께 지었다.(同三女作)’라고 주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을 중심으로 서로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이지운, 「명말청초 여성의 문학 활동에 대한 시론 -『오몽당집』을 중심으로」 85).

있는데, 당시 이러한 모임을 통해 서로 문학적 교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집도 간행해주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상경란(商景蘭)의 경우도 장호(張昊)의 작품집 『금루합고』(琴樓合稿)에 서문을 써주었고, 심대영(沈大榮)도 심의수(沈宜修)의 『여취집』(鸚吹集)에 서문을 써주었으며 심의수도 주혜정(周慧貞)의 『잉옥편』(剩玉篇)에 서문을 써주었고 심채(沈彩)도 서범(徐範)의 『옥대명한』(玉臺名翰)에 발문을 써 주었으며 육경자(陸卿子)도 항란정(項蘭貞)의 『재운초』(裁雲草)에 서를 써 주었다. 이러한 제반의 상황을 통해 명대 여성 작가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교감을 나누었던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서원(徐媛)이나 육경자(陸卿子)처럼 교류의 폭이 넓었던 여성들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과도 문학적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경우 거의 시를 짓기만 하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서로 문장을 검토 받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명대 여성의 서간문 중에는 서원의 글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서원의 서간문들은 하나 같이 모두 각별한 정을 서술한 뒤에 편지와 함께 작품을 보내 문장을 검토 받고 있다. 그녀의 「사춘 여동생 소부인(邵夫人)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소부인과 헤어진 후의 느낌을 쓴 후에 “또 편지 뒤에 「기회」(寄懷) 2수를 함께 보내니 고쳐주길 바란다. 내가 남의 흉내나 냈다고 비웃지나 말기를(又寄懷二律尾後，并呈斧削。幸勿以效顰見嗤)”(김지선, 정민경 123-125)라고 하며 자신의 시문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고, 「사를 적어 사춘 올케에게 부치다」에서도 보면 “나의 병 때문에 손수 글을 쓸 수가 없어 대신 적으라 명하고, 이를 현명한 부인에게 보내니 고쳐주십시오.(緣賤恙不任手書，謹命代錄，呈賢夫人斧削)”(김지선, 정민경 131-132)라고 하며 자신이 쓴 사 작품을 고쳐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사춘 동생인

20) 방유외, 「조카 밀지에게 보내는 편지」(與密之姪書). 호문해, 『역대명원문원간편』(歷代名媛文苑簡編).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1947. 54 참조.

중용(仲容)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헤어진 후에 화로를 안고 급히 몇 마디 말을 써서 목도(木桃)를 선물하는 공경의 뜻을 조금이나마 보내니 원컨대 그리움 가득한 시로 받아서 문단에서 하는 것처럼 일일이 색칠하거나 지워가며 고쳐주기를 바란다.(別後擁爐草成數語, 少將木桃之敬, 願邀明月之章, 錄似詞壇, 一一塗抹是望)”(김지선, 정민경 126-127)라고 하며 사촌 동생과 서로 문장을 주고받으며 우애를 더욱 다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서원 이외에 양맹소(梁孟昭)의 경우도 그녀의 율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시문을 쓰게 된 배경이나 마음상태 등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험운(險韻)을 나누어 겨우 세 수를 지었으나 그저 대충 마무리한 것이라 고쳐주었으면 하고 보내는 것이네(所分險韻, 僅成三首, 乃聊且塞白耳, 惟郢政之)”(김지선, 정민경 133-134)라고 하며 문장 수정을 부탁하고 있고, 진부인(陳夫人)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기러기애다 잠시 안부 묻는 편지와 그림 부채 두 자루를 보내니 웃으면서 교정해주시기를 덧붙여 바랍니다.(鴻便聊申候私, 畫箑二柄, 附求粲政)”(김지선, 정민경 46)라고 하며 자신의 그림과 글에 대한 교정을 바라고 있다.

이처럼 꼭 사단(社團)이나 모임을 결성하지 않았다할지라도 그들 사이에는 문학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교류 속에서 여성들의 문학에 대한 자각도 생겨나고 자신만의 문학적 인식도 생기게 되었다. 오백(吳柏)의 「여씨(呂氏)언니에게 부치는 편지」를 살펴보면 오백은 여씨 언니와 시를 읽는 독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흰 머리가 삼천 장(丈)’이란 표현은 시인의 과장된 언어일 뿐으로, 그 글자에 집착하면 그것은 바보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 없으니 밤에도 금은(金銀)의 기운을 알아본다”는 표현은 매우 기이한 말이지만 주석 없이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반드시 어떻게 밤에 알아볼 수 있는가를 따지려 한다면 비록 두보(杜甫)

를 지하에서 일으켜도 주석을 달아가며 해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집에 있을 때 아버님과 오라버님으로부터 익히 들던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물에까지 미루어 적용한다면 그 예는 끝도 없을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맹자(孟子)가 “자신의 생각으로 남의 뜻을 미루어 살핀다(以意逆志)”라고 한 말은 진실로 천고에 길이 남을 시 읽는 방법입니다. (白髮三千丈, 此詩人鋪張語耳, 泥之, 則是向痴人說夢也. 卽如“不貪夜識金銀氣”, 此極奇語, 然須以不解解之. 如必求其何以夜識, 雖起老杜於九京, 彼亦不能以解解也. 此妹在家時, 習聞父兄之論. 若此引伸觸類, 莫可勝窮. 善夫! 孟子之言曰: “以意逆志”, 眞千古讀詩之法)(김지선, 정민경 77-79).

오백은 “자신의 생각으로 남의 뜻을 미루어 살핀다(以意逆志)”는 맹자의 관점이 시를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고 여씨 언니에게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오백은 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 논하면서 “주석을 달아가며 해석하지 않고 시를 이해하는(以不解解之)”의 방법, 즉 시인이 어떤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건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견해로 시를 읽는 것이 진정한 감상태도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아마도 고증학과 각종 전주(箋注)가 성행하면서 시마저도 “주석을 달아가며 해석하여 시를 이해하려는(以解解之)” 당시 풍토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학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종종 성격이 비슷하고 취미가 같으며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가정환경이나 교육을 받은 정도도 비슷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임이나 교류의 방식은 그들이 감정을 나누는데 유리했고 이러한 감정적 교류의 바탕에서 서로 문장을 수정해주고 문학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명대에는 이러한 문학적 교류의 바탕 아래 자각적으로 여성의 작품을 모으고 간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 자신의 문학적 표준으로 여성의 작품을 편집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

인 예가 바로 심의수(沈宜修)와 왕단숙(王端淑)이다. 심의수는 비교적 일찍부터 여성작가의 작품을 모았고, 『이인사』(伊人思)를 편찬하여 당시 여성들의 작품을 보존하려 했다. 그래서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의 작품을 집록하며 여성의 신분이나 살았던 시대, 작품의 우열 등으로 나누었던 형식을 탈피해 좀 더 여성적인 관점에서 구분하려고 했다. 그녀는 원래 문집이 있는 사람, 문집은 없으나 다행히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사람, 구전으로 전해오는 작품이 있는 사람, 필기에 실려 여기저기 흩어져 보이는 사람, 계선(乩仙) 등으로 순서를 정해 흩어져 있는 여성 작품을 애써 모으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왕단숙의 경우는 자신의 『명원시위초편』을 완성하면서 남편에게 보냈던 편지(「장호(張昊)의 유고(遺稿)를 논하며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가 남아있는데, 이를 통해 좀 더 명확히 그녀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장호(張昊)의 율시 작품들은 노장(老莊) 사상을 높이 사고 수식하지 않는 것을 중시하였으니 진실로 「대아(大雅)의 여음(餘音)이요, 사시(四始)의 정격(正格)입니다. 오언절구와 칠언절구는 맑고 빼어나며 수려합니다. 음운(音韻)이 맑아 길게 읊조릴수록 더욱 유장하니 실로 노래할 만하고 읊을 만하지라 진실로 여성문인들 중에서 독보적입니다. 안타깝게도 꽃다운 시절 오래가지 못하고 난옥(蘭玉) 같은 모습 갑자기 꺾어버렸습니다. 만약 장호가 천수를 누렸다면 그가 이루는 바에 끝이 있었겠습니까? (槎雲律體諸作, 高老莊, 重不加雕琢, 眞大雅之餘音, 四始之正格也. 五七言絕句, 明逸娟秀, 音韻鏗然, 引而愈長, 令人可歌可誦. 洵乎筭中獨步矣. 惜其芳齡不永, 蘭玉遽摧, 倘天假之年, 其所造, 豈有竟哉?) (김지선, 정민경 142-143)

이 글은 장호의 작품과 인품에 대해 논하면서 남편에게 보내는 서간문이다. 남편과 함께 장호의 작품에 대해 평가하면서 왕단숙 자신의 문

학적 이론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왕단숙은 아버지 왕사임(王思任)의 영향을 받아 시 창작에서 '성령설(性靈說)'을 강조하였다. 자연스런 시풍을 추구하였기에 왕단숙은 조탁과 수식을 가하지 않은 장호의 작품을 『시경』에 필적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섬세하고 유려한 시풍을 지양하고 무위자연의 기법으로 「대아」의 풍모를 간직하고 있으며 읊조릴수록 깊은 여운을 지니고 있는 점을 들어 장호의 작품을 높게 칭송한 것이다. 왕단숙의 「명원시위초판자서」를 통해서도 그녀의 문학적 생각을 읽을 수 있지만 이처럼 서간문 속에서 좀 더 솔직하고 대담한 의견들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듯 여성작가들은 혼자서, 혹은 자식들과 함께, 혹은 주위 사람과 함께 하나의 문학 집단을 이루며 문학적 교류와 창작을 하였고 그 속에서 진지한 이야기, 문학적 관점들이 오고갔으며 점차 문학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3) 개인적인, 너무나 개인적인

여성이 글쓰기에 열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기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²¹⁾ 이러한 글쓰기로부터 여성들은 서로 간에 교류를 시작했고 세상과 소통했다. 또한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소소한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글로 표현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여성들은 솔직하면서도 진실한 글쓰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21) 『명원시귀』(名媛詩歸)를 편찬한 종성(鍾惺)은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이 작품들이 주변적인 것이고 열등한 것이라고 주장한데서 벗어나 사실 여성의 시가 남성의 것보다 우월하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바로 여성이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남성이 따라오지 못할 뛰어난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란 성령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종성은 고인들의 시 스타일이나 전고를 모방하는 당시의 글쓰기 형태를 대단히 불만스러워 했고 그 때문에 여성시의 청정함 속에서 한계에 부딪힌 남성문학 세계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랐다(최수경, 『명청시기 여성문학 자료 역주와 해제(1)』, 211-217). 종성의 이러한 주장은 여성의 글쓰기가 매우 감정에 치우쳐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문재(文才)에 대한 자신감과 전파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사대부 여인들의 경우 대부분 비슷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앞에 놓여진 일상의 소소한 일들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여성들에게 위로와 안식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썼던 글들은 대부분 규방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었다. 명대 여성의 시문집만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이별과 원망, 그리움, 아픔 등의 정서들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으며 소재적 측면에서 보면 모두 소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이나 감정인 경우가 많다.

문학적 교류가 많았던 명대의 여성들은 모임을 통해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변에 일어난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들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여성들은 즐겁고 행복할 때보다 슬프고 아플 때 더욱 글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래서 그들의 글쓰기는 절제된 감정이 아닌 때로는 지나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자세하게 감정을 담아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심의수의 딸인 엽환환(葉紉紉)은 결혼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그녀는 약 7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단 하루로 즐거운 날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남편과의 사이가 나빴다. 이러한 불행한 감정은 엽환환의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여성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규방의 외로움과 슬픔이었다.

그리고 여성의 시문집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 과부로 수절하며 살아가는 여성의 작품들도 많이 보인다. 당시에는 ‘도망(悼亡)’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이 쓰였는데, 당시 여성작가들에게도 도망 작품이 많았고 유명한 작품들은 인구에 회자될 정도였다.²²⁾ 시사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곡(曲)에서 까지 도망 작품이 보이기 시작한다. 형

22) 이러한 도망 작품들은 강요된 명대의 정절관과 일정정도 연결되기도 한다.

자정(邢慈靜)의 「검도략」(黔塗略)은 시사 작품이 아닌 산문으로 자신의 인생사를 서술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하고 사실적이다. 형자정은 남편 마拯(馬拯)을 따라 귀주(貴州)로 갔다가 남편이 죽자 관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소회들을 『검도략』에서 섬세하게 묘사했는데, 남편을 잃은 슬픔과 인생의 처절함, 고난을 극복한 강직함이 잘 표현되어있다. 아래의 문장은 「검도략자서」(黔塗略自序)로 자서만으로도 충분히 형자정의 고난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병든 몸을 이끌고 관을 붙들며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삶은 없고 죽음만 있는 상황은 입이 백 개라도 다 묘사할 수 없다. 험난한 산과 강에서 혼백이 요동친 것은 입이 천 개라도 다 묘사할 수 없다. 큰 멧돼지와 기다란 뱀이 성을 내고, 포효하는 승냥이와 호랑이가 위협하여 우리 모자가 잠시도 돌아볼 수 없게 하였던 것은 입이 만 개라도 다 묘사할 수 없다. 고통이 가라앉은 다음 그 고통을 다시 생각하며 잠시나마 그 대략의 상황들을 조목조목 가려 써내어 후손들에게 나의 고통을 알게 하였으니 한 번 죽어 멀리 떠나더라도 여한이 없을 따름이다。(乃厭厭扶櫬還，沿途有死無生之狀，百口不能摹。危山險水，魄震魂搖者，千口不能摹。封豕長蛇之怒，豺號虎嘯之威，俾母子瞬不及顧者，萬口不能摹。痛定思痛，姑條分其概，俾後世子孫，知余之苦，遠謝一死萬萬耳)(김지선, 정민경 105-109).

형자정이 『검도략』이라는 문집을 통해 남편을 잃고 난 후의 감정을 세세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여성의 경우 남편의 관직을 따라 함께 임지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가 살던 터전이 아닌 낯선 곳에서의 힘든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명대 여성작가들은 개인적인 사건을 세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이를 통해 스스로 아픔을 달래고 남과 그 아픔을 나누려고 했다.

서발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작가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 친구를 찾았고 그들에게서 감정의 상처를 위로받거나 위로하였다. 심의수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두 딸인 엽소란(葉小鸞)과 엽환환(葉紉紉)을 잃음으로 해서 그의 문학 인식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심의수의 『이인사』를 살펴보면 그녀가 특별히 모녀, 자매 등의 가족문인의 저록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록한 작품 중에 모녀, 자매지간에 창화하거나 혹은 그들을 위한 작품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중 심의수는 왕봉한(王鳳嫺)의 시에 각별한 애정을 보인다. 왕봉한은 「추야기원경이녀」(秋夜寄元慶二女)에서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에 가을 밤 잠들지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썼고, 「비감원경이녀유물」(悲感元慶二女遺物)에서는 두 딸을 잃은 후 그들의 유물, 예를 들어 빈 방, 먼지 덮인 거울, 부서진 거문고, 책, 꽃 등을 보고 드는 그리움을 썼으며, 「억진아(憶秦娥)-월야억망녀인경(月夜憶亡女引慶)」에서는 죽은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절절한 슬픔을 썼다. 심의수는 왕봉한의 시를 읽으면서 깊이 공감하였고 딸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심의수는 왕봉한의 「추야기원경이녀」에 대하여 “마치 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듯하여 함께 수록해 두었다.(似有余懷, 故并錄之)”라는 주석을 달았고, 「비감원경이녀유물」에 대해서는 “이를 본떠 쓰려했으나 너무나 상심하여 할 수 없었다.(擬欲屬和, 傷心未能也)”고 주석을 달아, 두 딸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읽어냈다. 동일한 경험을 가진 이의 글을 읽으며 심의수 자신도 슬픔의 위로를 받았으므로 여성 작품에 대해 더욱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고, 후세 독자에게 남길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²³⁾

심의수는 또한 재주는 뛰어나지만 요절한 여성들을 주목하였는데, 심의수 본인이 딸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이들에 대해 특히 관심을

23) 심의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이지운, 『명말청초 여성의 문학활동에 대한 시론 -『오몽당집』을 중심으로』(『중국어문학지』제30집) 90-92쪽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가졌다. 심의수는 그들의 작품이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고단한 삶을 사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한 줄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심의수는 여성 작가를 수록하면서 일일이 작가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는데, 요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도요슬(屠瑤瑟)은 20살에 죽었고, 우정방(虞淨芳)은 30살에 죽었으며, 황쌍혜(黃雙蕙)는 16세에 죽었고, 동씨부(董氏婦)는 “시집간 지 1년만에 율화통으로 죽었고(嫁始逾年, 抑鬱而死)”, 원동방(袁彤芳)은 29세에, 황유조(黃幼藻)는 39세에, 강씨(姜氏)는 32세에, 유씨(劉氏)는 요절하였다고 했다. 심의수가 주혜정의 『영옥편』에 쓴 서에서도 일찍 죽은 주혜정을 보면서 딸들 생각에 눈물짓고 있다.

나는 진실로 주읍분과 사귀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지금 주읍분이 쓴 시와 사를 읽으니 더욱 슬픔을 그칠 수 없다. 게다가 또 주읍분 때문에 더욱 두 딸이 생각나 눈물이 줄줄 흘러 옷소매를 적신다. 그래서 감히 서문은 짓지 못하고 그저 나의 몇 년 동안 쌓인 회포만을 적을 뿐이다(余固恨未識挹芬. 今讀其詩若詞, 益悲傷無已. 且又因挹芬而益漣漣爲兩女濕衫袖矣. 故非敢爲序, 聊書余數載夙懷也.)

(김지선, 정민경 62-67).

이들의 글쓰기는 거창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의 것을 터놓을 수 있는 것이었고 서로를 위로하고 교류하기 위한 도구였다. 심의수가 여성의 작품을 열심히 보존하고, 전파하려 했던 것은 「이인사자서」에서 밝힌 대로 한 편으로는 재주 있는 여성이 사랑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한 몫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험과 정서를 다룬 글의 힘을 인식했던 것이다.²⁴⁾ 그녀 역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숭한 어려움을 감

24) “혹 세상에 이미 전해졌으나 세월이 파묻히고 산천에 가로막혔을 수 있으니 이

내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여성의 글을 읽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이 혼자 아님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 글에 대한 동정적인 독자로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됨을 알았던 것이다. 이렇게 여성들의 문학적 소통은 위로와 치유의 작용이 있었다. 여성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여성작가들의 이러한 개인적이고 세심한 글쓰기 특징이 그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영혼의 위로의 역할을 했고, 글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의 교류를 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이 결코 특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여성들이 일상의 근심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시구를 엮는 모습에서 여성에게 있어 글쓰기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상상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 짬을 내어 개인적인 일을 서술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조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났어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를 통해 다른 여성들과 교감할 수 있었다.

4. 나오며

이제까지 명대 사대부 여성들의 서발문과 서간문을 통해 당시 여성작가들의 문학체험과 그들의 글쓰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대에는 출판업의 발달로 비교적 많은 종류의 책들이 대량으로 간행되었고 이들 서적을 접하면서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여성들은 다양한 책을 읽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야기글, 자신만의 문장을 쓰

또한 탄식할 노릇이다.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는 아름다운 문장의 편린들과 다른 서적에서 흩어져 보이는 글들을 모두 모아 수록하고 감히 내버리지 않았다(然或有已行世矣, 而日月漚焉, 山川阻之, 又可歎也. 若夫片玉流聞, 并及他書散見, 俱爲彙集, 無敢棄云)"(김지선, 정민경 59-61).

게 되었다. 또한 명대 여성들은 마음이 맞는 모임을 통해 서로 문학적인 교류를 하며 자신들의 문학적 인식과 생각을 키워나갔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상을 글로 쓰고 함께 읽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이렇듯 명대 여성의 글쓰기는 일종의 마음속 생각과 바람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써 작용했고 여성작가의 서발문과 서간문에서는 더욱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그들의 문학에 대한 생각들이 드러나고 있다.

필자가 중국의 여성문학을 연구하면서 놀라게 된 사실은 바로 중국여성문학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미미하고 심지어는 자료 정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문학사에 대한 저서로 가장 대표적인 유대걸(劉大傑)의 『중국문학발전사』만 보더라도 명청대에 많은 여성작가들이 나왔고 많은 여성 문학작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학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몇 줄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의 문학사 연구가 너무 남성작가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명대 여성작가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그동안 남성중심으로만 서술되던 중국문학사의 틈새를 메울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명대문학사를 쓰는데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성별, 계층, 학제를 벗어난 정말 말 그대로 ‘탈경계’, ‘탈전통’의 연구가 중국문학 연구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顧若璞. 「與張夫人」. 『名媛尺牘(清靜寄東軒輯)』清刻本. 靜寄東軒 編輯.
 <<http://digital.library.mcgill.ca/mingqing>>
- _____. 「與胞弟書」. 『名媛尺牘(清靜寄東軒輯)』清刻本. 靜寄東軒 編輯.
 <<http://digital.library.mcgill.ca/mingqing>>

- 謝國禎. 『明清之際黨社運動考』. 遼寧: 遼寧教育出版社, 1998.
- 葉紹袁 原編, 冀勤 輯校. 『午夢堂集』. 北京: 中華書局, 1998.
- 胡文楷. 『歷代婦女著作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_____. 『歷代名媛文苑簡編』. 上海: 商務印書館, 1947.
- 김원동. 「명말청초 여성의 文才와 창작에 대한 소고-서발문을 중심으로」. 『순천향대 안문과학논총』21 (2008): 53-68.
- 박계화, 장미경. 『명청대출판문화』. 서울: 이담, 2009.
- 오오키 야스시.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노경희 옮김. 서울: 소명출판사, 2007.
- 이지운. 「명말청초 여성의 文學活動에 대한 試論-『午夢堂集』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30 (2009): 69-103.
- _____. 「沈宜修의 悼女詩 研究」. 『중국어문학지』32 (2010): 7-34.
- 정민경, 김지선 옮김. 『명대 여성문인들의 문예관과 문예 교류를 엮은 산문선-그 사람을 그리워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네』. 서울: 사람들, 2010.
- 최수경. 「명청시기 여성문학 자료 역주와 해제(1)」. 『중국학논총』19 (2006): 203-228.
- _____. 「명청시기 여성문학 자료 역주와 해제(2)」. 『중국학논총』20 (2006): 273-300.
- _____. 「명말청초 여성의 어문활동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독서행위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40. (2006): 455-484
- 張麗杰. 「明代編纂刊刻女性文集的選文標準及其目的」. 『社會科學輯刊』2, 2010.
- 韓淑舉. 「明清女性閱讀活動探析」. 『圖書館工作與研究』1, 2009.
- 黃曉丹. 「沈宜修研究」. 碩士學位論文. 南昌大學校, 2007.

Women's Literary Exchange and Literary Recognition
in the Ming Dynasty:
Focusing on Women Anthologies and Letters

Cheong, Min-Kyung

(Research Institute for Chinese Culture at Ewha Womans University)

Women in China have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to have suffered in silence under an ethic that was suffocating to them. However, a lot of literary works written by women were published in collections as printing technology developed in the Ming Dynasty and women writers as a group, not just as individuals, appeared. This phenomenon can give rise to a new trend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ry studies, which has previously centered upon male writers, but the study of female Chinese writers is still few.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women's literary activities and their literary philosophy through what the women writers directly wrote. First of all, I attempt to arrange prefaces and letters written by women in the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Women's Works in Recent History* (歷代婦女著作考) and *Collection of Letters Written by Women in History* (歷代名媛文苑簡編), written by Ho Moon-gye, and *The McGill-Harvard-Yenching Library's Ming-Qing Women's Writings* (明清婦女著作)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literary style in them, dividing these into three large parts. The first is female

education and female writing. Comparatively many books were publish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printing industry in the Ming Dynasty, and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 was expanded to women connected to education. Women read various books and wrote their works based on the knowledge gleaned. Second, I treat literary exchange and literary recognition through private groups. Women in the Ming Dynasty exchanged literature with each other and raised their literary knowledge through their favorite groups, wrote about their daily lives in their works, and continued to form bonds of empathy while reading their works together. Third, I note the individual and insignificant writing. Women in the Ming Dynasty were very enthusiastic for literary writing that expressed their own experiences and emotions. Women could encounter their own inner life through individual works describing their busy daily life and exchange their emotions with other women. In this way, female literary activities acted as a means of spreading the thoughts and desires of the heart and women's views on literature, which are revealed directly and candidly in their prefaces and letters.

주제어: 명대(Ming Dynasty), 여성작가(women writers), 여성교육 (female education), 문학체험(literary exchange), 문학인식 (literary recognition)

논문제출일: 2012. 04. 11

심사완료일: 2012. 05. 05

게재확정일: 2012. 05. 10